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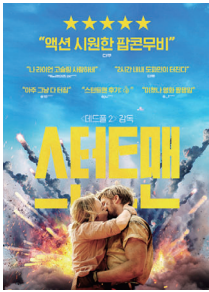
# 미국적 액션, 그리고 씬과 로맨스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데이비드 리치** 감독  
**‘스턴트맨’**

‘액션도 버리고, 사랑도 터지고, 웃음도 터진다’는 영화 ‘스턴트맨’은 1981~1986년까지 ABC에서 방송된 TV 드라마 ‘더 폴 게이(The Fall Guy; 글렌 A. 라슨 작)’가 원작이다. 우리나라에 방영되었을 적에 원제목 대신 ‘스턴트맨’이라 불렸던 타이틀이 이번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영화 스토리에는 영국의 극작가 톰 스토포드가 즐겨 사용하던 ‘액자 형식’의 ‘극 중극’ 서사방식을 적용, ‘영화 속의 영화’로 응용하였다. 톰 스토포드와 다르게 영화 속의 영화에 감독과 스토포드라는 직업의식과 제작환경을 있는 그대로 반영, 영화와 영화 속 영화를 연계하는 투명들의 역자라는 것이 신선했다.

스턴트맨 콜트(배우 라이언 고슬링)는 촬영감독 조디(배우 에밀리 블린트)와 알콩달콩 씬을 타는 중이다. 사이 좋은 연인의 모습도 잠시, 콜트는 촬영중



데이비드 리치 감독 ‘스턴트맨’.

유니버설 픽처스 제공

사고를 당하고 자신감을 잃은 채 잠수를 탄다. 주차요원으로 소일하던 콜트에게 어느날 총감독 게일(배우 한나 웨딩햄)에게서 전화가 걸려온다. 다시는 촬영장으로 돌아갈 수 없다 생각하던 그였지만 조디가 감독으로 데뷔하는 영화 ‘메탈 스톰’의 스토포드 제의는 도저히 거절하기 힘들다.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 브리지가 보이는 시드니 바닷가 촬영현장에서 17개월 만에 뜻밖의 재회를 하게 된 조디의 입장과 달리 콜트의 스토포드 제안에는 다른 숨은 의도가 있어 고군분투하게 된다.

데이비드 리치 감독은 스토포드 출신이다. 영화 ‘스턴트맨’ 연출에 기울였을 그의 애정이 예상되는 이력이다. 감독의 애정 덕에, ‘007 카지노 로얄’ (2006)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캐논볼(자동차를 공중에서 회전시키는 스토포드 기술)’ 기록을 18년 만에 갱 7바퀴 반

기록은 이 영화의 성과다. 그러나 애정이 과했는지 영화에는 폭발 장면이 넘쳐나고 액션으로 가득 채워져 스케일 만큼은 가히 미국적이었다. 주역과 조역을 막론한 배우들의 파이트 신까지 더해진 과도한 액션 속에서 액션과 버무려진 씬과 로맨스, 통통 튀는 코믹 대사가 그나마 열기를 낮춰줄 만큼이었다.

리치 감독은 수많은 영화로부터 신을 오마주했다. ‘킬 빌’ (2003), ‘메멘토’ (2000), ‘엣지 오브 투모로’ (2014), ‘데드풀 2’ (2018), ‘텔마와 루이스’ (1991) 등 영화계를 빛낸 작품들의 대사를 언급하거나 은유하는 장면 등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콜트가 차 안에서 울며 들었던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그리고 조디가 가라오케에서 부르는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 역시 즐겨거리를 감성적으로 반영한다. 디자인 작품 중 패치워크를 통해 세

로운 디자인을 창출하듯 만들어진 영화라 패러디보다는 오마주에 가까운 듯하다.

영화의 행간에는 할리우드의 필름 성장에 큰 공헌을 한 숨은 그림자, 스태프들에게 애정과 헌사를 표하고 있다. 특히, 액션 영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스토포드맨들의 ‘원 테이크’ 촬영이 얼마나 중요하며 위험한지를 낱알이(쿠키영상까지) 보여줌으로써 스토포드맨들을 위한 헌정작이 되었다.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대사 중에 있었다. “난 스토포드맨들이 좋아. 진짜 고생하는 건 당신들이잖아? 그런데 너희들, 상은 받나? 오스카 스토포드상? 아니, 스토포드맨들에게 주는 상은 없어.”

이 상은 앞으로도 생겨날 것 같지 않다. 영화에도 등장한 ‘딥페이크’(AI를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기술) 테크닉의 발전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 최근 드라마에 선보인 기술이다. ‘살인자ㅇ남자’에서 배우 손석규의 어린 시절을 맡은 아역배우의 얼굴에 손석규의 어린 시절 얼굴을 수집해 배우에게 입힘으로써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신기술 딥페이크는 배우들의 고유성을 위협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 진실과 허구, 실체와 가상(이미지), 객관과 주관의 경계는 영화에서 어디까지 발전해 갈까. 스토포드는 갈수록 설 자리를 잃은 “잃어버린 예술”이라는 데이비드 리치 감독의 말처럼 씩씩함이 공존하는 기술인 것이다. 5월1일 개봉.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 천일염 분류체계 ‘식품’으로 재정립을

 **취재수첩**  
**조진웅**  
취재2부 기자  
jinyoung.cho@jnilbo.com

“천일염에 대한 가치는 소비자들이 책정합니다. 양보다 질 높은 천일염을 지속 생산해 내겠습니다.”

유역근 마하탑 염전 대표의 각오다. 유대표는 신안군 입자도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 ISO인증 받아 환경친화적인 천일염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는 고향인 신안 입자도에서 1987년부터 ‘한계·제한 없이 무한대’를 의미하는

마하탑이라는 이름으로 초록섬공동체를 꾸려오다 염전 소멸과 낮은 국내 소금 자급률을 회복시키기 위해 염전업에 뛰어 들었다.

1990년대 무렵 국내에서는 중국·사우디 등에서 수입한 암염을 정제해 염분만을 추출한 소금이 소비되고 있었으며 천일염도 정제불명의 제품이 한국 밥상에 오르는 등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다. 유 대표는 37세에 질 좋은 천일염 생산에 도전장을 내밀게 됐다.

마하탑의 도전은 한 살림, 아름다운가게, 학교급식 납품 등으로 이어지며 지난해 연매출 6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천일염 생산지는 신안·영광군 등 전국 19개 지자체에 927개

소로 이중 전남에 862개소·93%가 분포돼 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80% 염분과 20%가량의 수분 등으로 구성됐으며 굵고 반투명한 육면체 결정체다.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법적으로 광물로 분류되다 2008년 3월 광물이 아닌 식품으로 인정됐다.

광물에서 식품으로 법적 분류가 변경됐음에도 통계청이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천일염은 비금속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이다. 천일염이 식품으로 분류·변경된지 16년이 지났지만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기준에 의할 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광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산 천일염의 가치 제고를 위해 분류 체계 확립이 시급하다.

## 독자투고

### 기자회견 빙자 ‘폼수집회’ 근절돼야

최근 몇 년 사이 개인 및 단체들의 각종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개최되는 ‘폼수집회’가 늘고 있다.

경찰에서도 기자회견이 집회·시위에 해당하지 아니면 단순한 기자회견인지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 내에서의 평소 원만한 유대관계 유지 차원에서 조금은 관대하게 허용하고 있는 것을 악용,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시위를 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일부 개인 또는 단체들은 시간의 촉박성 등을 이유로 1~2명의 기자만 불러놓고 구호제창과 피켓팅 등 순수한 기자

회견 형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경찰서에 개최 일시·장소만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개최하려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 의견을 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시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후 개최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자회견 형식으로 한다고 했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연설을 하거나 구호제창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그 행사의 명칭과 무관하게 ‘미신고 집회’로 판단된다.

헌법과 집시법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개인 또는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적인 미신고 집회는 절대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김선욱 (구례경찰서 경비반장)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